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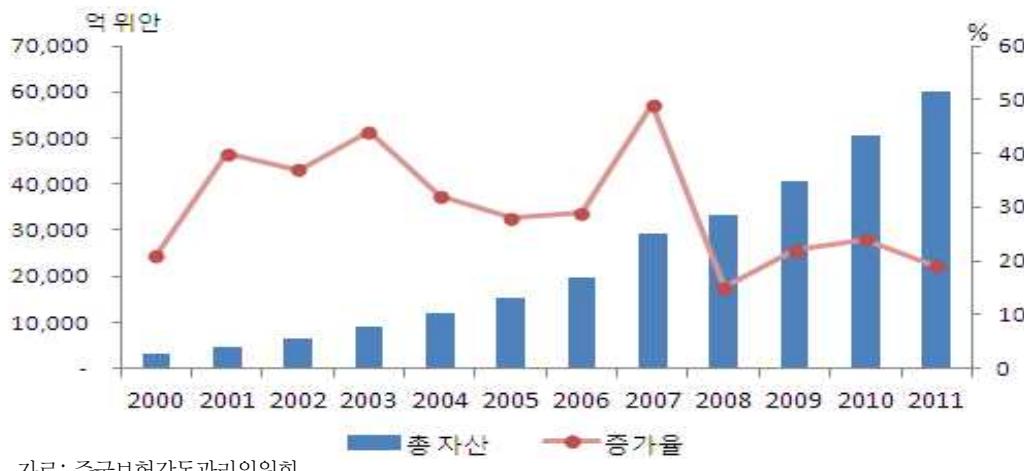
중국 금융시장 7: 보험산업 발전 역사와 현황 (3)

왕양비 연구원

■ 2000년부터 중국 보험시장의 총 자산규모가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, 2011년 말 60,138억 위안으로 2000년에 비해 18배 확대되었음.

- 이중 1위사인 중국인수(China Life)¹⁾의 경우 자산규모가 17,461억 위안으로 보험산업 총자산의 34.6%를 차지하며, 2, 3위사인 평안보험과 태평양보험은 각각 9,129억 위안, 4753억 위안으로 보험산업 총자산의 18.1%와 9.4%를 점유함(2010년 기준).
- 나머지 기타 중국계 보험회사의 자산 비중은 32.7%²⁾인 한편, 외자계 보험회사의 자산비중은 5.2%임(2010년 기준).

〈그림 1〉 보험산업 총자산규모 변화 추이 (2000~2011년)



자료: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.

- 1) 중국인수는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, 중국인수손해보험회사, 중국인수자산관리회사, 중국인수양로보험회사, 중국인수투자회사, 중국인수해외업무공사 등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중국 최대의 보험회사임.
- 2) 자산규모 상위 3개사인 중국인수, 평안보험, 태평양보험의 주력업무는 모두 생명보험인데, 4위사는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중국인보(PIOC)임. 중국인보는 중국인보손해보험회사, 중국인보생명보험회사, 중국인보건강보험회사, 중국인보자산관리회사, 중국인보자본투자관리회사, 중성국제보험중개회사 등 자회사를 보유하는 보험그룹이며, 2010년 4,414억 위안의 자산규모로 보험산업 총 자산규모의 8.7%를 차지함.

■ 중국은 WTO 가입(2001년 11월)조건으로 보험산업을 금융업 중 첫 번째로 개방하였는데, 2001년부터 4년간 실험적 개방을 거쳐 2005년부터 자동차책임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종목에서 외자계 보험회사의 진입을 정식으로 허용하였고, 2012년 들어 자동차책임보험 개방도 약속함.

-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외자계 보험회사의 기업설립, 영업지역제한, 업무범위, 자산요구 측면에서 점진적인 대외개방 전략을 수립하고 정해진 시간 내의 전반적 개방을 약속하였음.

- 기업설립

- ① WTO 가입 이후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의 지사 설립과 중·외 합자회사 설립이 즉시 허용되며, 합자회사의 경우 외자계 회사 지분이 51% 이하이여야 함.
 - ② WTO 가입 2년 이후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의 독자 자회사 설립이 허용됨.
 - ③ WTO 가입 이후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의 중·외 합자 자회사 설립이 즉시 허용되었으나, 외자계 회사의 지분이 50% 이하이여야 하며, WTO 가입 3년 후 동 한도가 51%로 늘어남.
 - ④ WTO 가입 5년 이후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의 독자 자회사 설립이 허용됨.
 - ⑤ 영업지역제한 취소 계획에 따라 중국 각 지역에서 외자계 회사의 자회사와 지점설립이 허용됨.

- 지역제한

- ① WTO 가입 이후 상하이, 광저우, 대련, 선전, 포산에서 외자계 보험회사 영업을 즉시 허용되고, WTO 가입 2년 후 베이징, 청두, 충칭, 푸저우, 쑤저우, 샤먼, 낭보, 선양, 우한, 텐진으로 영업 지역이 확대됨.
 - ② WTO 가입 3년 이후 지역제한을 철폐함.

- 업무범위

- ① WTO 가입 이후 외자계 손해회사가 지역제한 없이 포괄보험(Blanket policy)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외자계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보험, 책임보험, 신용보험 등의 업무가 허용됨.
 - ② WTO 가입 2년 이후, 외자계 손해보험회사가 중국고객과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손해보험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.
 - ③ WTO 가입 이후 외자계 생명보험회사가 중국 주민대상으로 생명보험업무(단체 생명보험은 제외)를 수행할 수 있으며, 가입 3년 이후 단체 보험을 포함하는 생명보험, 건강보험, 개인연금 등 모든 생명보험 업무를 허용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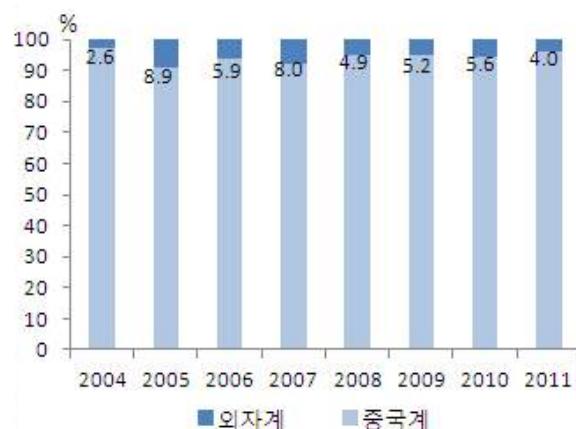
- 2012년 2월 중국이 미국과 함께 ‘중·미 경제관계 강화 연합 성명’을 발표하여 중국이 자동차책임보험시장을 외자계 보험회사에게 개방할 것을 약속했으며,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등 절차를 거친 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.

- 현재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책임보험 판매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에 따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, 동 시장의 개방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전망임.

■ 2001년 WTO 가입과 함께 중국 보험시장이 개방된 이후 10년간 중국에 진출하는 외자계 보험회사 수가 크게 늘어났으나, 시장점유율은 아직 낮은 수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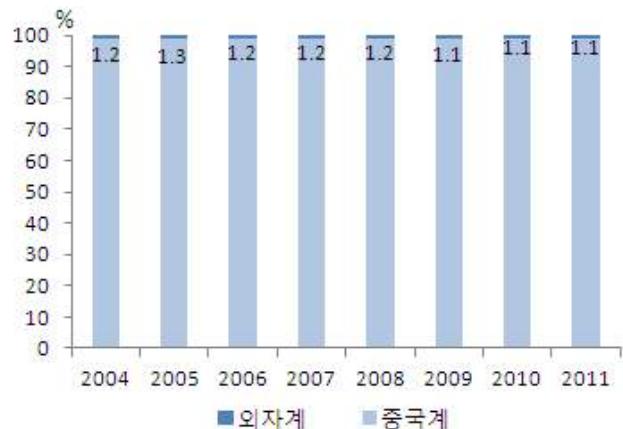
- 2011년까지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 보험회사는 2001년 16개사에서 45개사로 증가하였음.
- 그러나 전체 생명보험회사 수의 40%를 차지하는 25개 외자계 회사는 5% 이하, 전체 손해보험회사 수의 36%를 차지하는 20개 외자계 회사는 1%의 시장점유율에 그침.

〈그림 2〉 생명보험 회사 유형별 시장점유율 변화추이
(수입보험료 기준)



자료: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.

〈그림 3〉 손해보험 회사 유형별 시장점유율 변화추이
(수입보험료 기준)



자료: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.

- 단, 대부분 외자계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은 베이징, 상하이와 같은 1급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, 이러한 지역에서의 시장점유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.
 - 2011년 베이징에서의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4.3%, 3.9%에 달하였으며, 상하이의 경우 15.6%(생보), 7.8%(손보)에 달함.